

고령사회, 새로운 노인의 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은성호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02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길을 걷는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는데, 단계별 진입 속도를 보았을 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 세대 진입과 젊은 노인층의 등장은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바로 율드(yold)의 등장이다. 율드(yold)는 'young old'의 줄임말로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세대를 말한다. 이는 작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비중 있게 다루

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들의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소득, 건강, 재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의 등장이 불러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노인 개인의 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2020년 1,55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 구성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큰 향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직에 48.7%가 편중되어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노인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등 젊은 노인의 전문직 은퇴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다

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는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하게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2008년 30.8%에서 2020년 13.5%로 감소하였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한 노화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 등 노인 돌봄에 따른 비용 증가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질병에 대한 치료나 돌봄이 아니라 지금의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악화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돌봄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노인세대의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다. 독거 가구, 노인 부부 가구 등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가구는 감소하였다. 노인의 자발적인 요인에 따라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족관의 변화로 기존에 가족이 맡던 노인 돌봄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지게 되었고, 사회적 돌봄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의 생활 환경을 보면, 대부분 현재의 거주

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83.8%의 노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으며,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주택의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71.3%)은 불편한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을 배려하는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친숙한 장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 친화적인 주택 제공과 수선 비용 지원 등 노인을 위한 주거 관련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군으로 고려한 획일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면, 향후 노인정책은 노인의 다양한 집단군별 세심한 욕구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이윤경 외, 2021). 특히,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생각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서, 정교한 노인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노인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10월 호는 노인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 노인정책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계기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는 노인실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 6. 7.).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